

세월호 선체 변형...현 위치에 거치한다

선수·선미 휘고 중간 뒤틀려 더 이동하면 추가변형 우려 해수부 긴급회의 열고 결정

“변형 알고도 대책수립 미흡” 무게 이어 선체 변형 논란

세월호 육상 거치를 위한 이송 작업 중 변형이 발생해 선체 이송을 중단하고, 현재 위치에 그대로 거치한다. 계속 이송하다가 세월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를 올려놓을 거치대의 보강작업을 한 뒤 11일 오전 7시에 거치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10일 목포신항 취재지원센터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전 9시에 세월호 선체를 정밀조사한 결과 선체 중간 부분이 뒤틀리고 선수와 선미 부분은 휘어지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며 “계속 이동할 경우 추가로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 현 위치에 선체 받침대를 설치한 후 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9시 해수부 감독관을 비롯해 모토 트랜스포터 설계업체 ALE, 인양 컨설팅업체 TMC, 인양업체 상하이셀비지 관계자가 참석한 긴급회의서 확정됐다.

긴급회의에서 이들은 세월호가 계속 이동하면 추가적으로 선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다.

세월호는 반잠수식 선박을 완전히 빠져나와 부두 끝에서 4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우측으로 5도 가량 틀어진 상태다. 객실이 육지 방면을 바라보도록 이동하던 중 멈췄다.



10일 목포신항만 철재부두로 옮겨진 세월호를 거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는 이송 작업 중 변형이 확인돼 선체 이송을 중단하고 현재 위치에 그대로 세울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제공>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세월호 객실이 육지를 향하도록 요청해 이동하던 중 선체 변형이 발견돼 멈춰선 것이다.

이로 인해 세월호는 객실이 자동차부두를 향하고, 선수가 육지, 선미가 바다 쪽을 향하게 거치된다.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선체 변형은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인양까지 전반적으로 발생했다”며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 상태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체 변형은 세월호가 3년 넘게 바닷속에 있으면서 부식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동 과정의 충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게 짐작된다.

이 본부장은 “모토 트랜스포터를 통한 이동 과정에서 선체 변형이 발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예단의 성격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이동 과정에서 미세한 떨림이러든지, 부두가 정밀히 시공됐지만 다소 높낮이 차이가 있는 등 여건에 따라 변형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체 변형을 알고도 보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송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무게 산정의 오류

에 따른 육상 이송 지연, 전공 작업에 의한 선체 훼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세월호 육상 거치가 완료되면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된다. 선체 세척과 방역작업, 안전도 검사 등으로 기간은 약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체 상태의 확인이후 구체적인 수색 계획이 확정된다.

세월호 침몰해역에 대한 수중수색은 강한 조류와 기상 여건 악화로 1시간10분만에 중단됐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

갈라지고 녹슬고...객실 증축 선미쪽 심하게 기울어져

세월호 가까이서 둘러보니 “침몰·인양 과정 전반적 발생”

3년 가까이 바닷속에 있다가 10일 오전 목포 신항 철재부두에 올라온 세월호의 모습은 처참했다. 회색빛으로 바랜 표면 곳곳에는 갈라진 자국과 붉은 녹이 선명했다.

특히, 배 앞과 뒤의 기울기가 달라 보이는 등 선체 변형도 확인됐다. 선체 중간에서 선미 쪽으로 일부 꼬이는 현상과 선수

와 선미에서는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선미 쪽이 선수 쪽보다 더 기울어 있었다. 선미 쪽은 객실이 밀집해 있는 부분인데 5층 증축으로 인한 무게 때문에 심하게 기울어져 모토트랜스 포터를 짓누르고 있었다. 곳곳에서는 균열도 발생했다.

이러한 선체변형은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인양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해저에서 선체를 끌어올려 반잠수선으로 옮기는 등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났

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미는 앞쪽에 비해 심하게 녹이 슬어 붉은빛을 띠고 있었고 선수 아래부분은 인양과정에서 밧줄 등에 긁혀 찢어진 자국이 선명했다.

침몰하면서 해저면에 닿았던 좌현 측 선수와 선미 부분은 구겨진 종잇장처럼 찢겨져 있었고 철제난간은 뜬개처럼 있었다. 갑판은 왼쪽이 움푹 파여 무너진 상태였다.

프로펠러 한 쌍은 검게 변색해 멈춰섰고, 방향타는 오른쪽으로 급하게 회전한다

침몰한 당시 그대로다.

세월호 곳곳에 설치된 유실방지망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한쪽이 떨어져 비스듬히 걸려있거나 아예 전체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었다.

선체 갑판에는 인양 당시 생긴 흔적으로 보이는 굵은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고 갑판과 난간, 유리창에 칠해졌던 녹색과 흰색 페인트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미수습자 허다운양의 엄마 박은미(48)씨는 “배가 너무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다가 보니 선체가 약해져 부식되고 변형이 일어났다. 저런 곳에 내 아이가 있다니 하루빨리 찾고 싶다”고 말했다.

/목포=전은재기자 e6j621@

음주운전자 노려 28건 고의 교통사고

광주경찰, 보험사기단 검거

음주운전자를 노려 7개월간 28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단이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특수상해 등)로 고모(4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김모(44)씨와 임모(37)씨를 붙잡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8월29일부터 지난 달 22일까지 광주시 서구 삼두지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28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5990만원의 합의금과 4042만원의 보험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가 주변에 차량을 정차해놓고 술을 마시고 운전

대를 잡은 음주운전자를 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주행이 서툰 차량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28명 중 19명으로부터 200만~500만원씩 총 59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운전자가 아닐 경우 보험회사에 접수한 과실을 가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가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많은 사고에 연루된 것에 의심을 하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의 공범 2명을 검거했다.

김성수 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범죄행위로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면서 “고의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부담은 위헌” 헌법소원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심판한다. 헌재는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 이모(21)씨가 병역법 시행령 6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접수해 본안 심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현역병의 보수 체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소집 3개월까지는 월 30만1000원(중식비 포함), 10개월까지는 월 31만4400원, 17개월까지는 월 33만3400원, 24개월까지는 월 35만4400원을

지급받는다. 이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비로 의식주를 제공받는 현역병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소집근무하는 24개월 동안 총 1588만9416원의 의식주 비용을 사회복무요원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식주 비용을 자신의 재산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현역병과 다를 바가 없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눈덮인 산 오르다

한인 등산객 5명 추락사

캐나다 밴쿠버 인근 하비산에서 한인 남녀 등산객 5명이 눈덮인 산을 오르다 추락사했다고 캐나다 현지 매체 밴쿠버 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의 한인 산악회 두 곳의 회원들인 이들은 해발 1652m 높이인 하비산을 등반하던 중 습진

채로 발견됐다. 사망자 중 한 명은 대학 때부터 등산 활동을 하는 등 5명 모두 오랜 등산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는 헬리콥터 2대와 수색구조대원 40여 명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정상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한인 등산객들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장 창고 폐구리선 들고 된 불법체류자 탈미



○...야음을 틈타 광주 시내 한 공장 창고에 침입해 폐구리선 통

치를 훔쳐 달아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탈미.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적 A(36)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0시40분에 광주시 서구 모 공장 담벽을 넘어 창고에 들어간 뒤 시가 250만원 상당

의 폐구리선 300kg을 들고 달아났다

가 붙잡혔다는 것.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분석과 탐문수사를 거쳐 A씨를 붙잡아 그가 지난 2011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는 한편 A씨에게서 폐구리선을 매입한 장물범에 대해

서도 수사를 진행. /김형호기자 khh@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최저가 776,000,000
건물 419평 감평가 1,108,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평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최저가 3,304,000,000
건물 329평 감평가 3,406,000,000

담양 담양읍 삼만리 근린시설



대지 1073평 최저가 540,000,000
건물 336평 감평가 1,506,000,000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최저가 788,000,000
건물 340평 감평가 1,125,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최저가 742,000,000
건물 305평 감평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액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적 6,000만원 분세 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평가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분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